☞ 17면에서 계속

낳아준 은혜·'法의 은혜' 둘 아닌 하나

않는 게 없고, 웃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꽃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서 가장구가 반이 뚝 잘라지다시피 해서 껍데기가 안 붙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물이 흐르는데, 눈으로 볼 때는 진물이 흐르지만 그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을 손으로 뜯어서 새끼를 꽈 가지고 그거를 한데 합쳐가지고 매줬죠. 매주고서 돌아서는데 너무 즐거운 거 있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마음도 즐겁고, 그 마음이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몇 달 있다가 거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진이 묻어서 그냥 한데 합쳐져서 아주 끄덕없이 붙어 버렸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우습게, 말을 못한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엇이든 우습게 생명을 생각하는데 내 생명을 위한다면 남의 생명을 앗아가서 되겠습니까?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어느 스님이 날이 저물어서 오두막집을 들어갔더니 소머리를 고아서 한 쟁반을 해 가지고 와서 스님더러 잡수라고 그러니까는 스님이 두말없이 잡숴버립니다. 스님이 두말없이 잡숴놓고 하는 말입니다. "어허, 이거 소의 무명이 다 벗겨져서 한참나에 내가 되어버렸구나." 이러더랍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차에 실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나 개가 줄쌍하면은, 스무 개든지 백 개를 넣어도 주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게 안락사가 돼서 무명을 벗습니다. 무명을 벗은 뒤에 사람 속으로 들어갔으니 사람의 마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짝짓는 데로 내준다면 사람이 되는 거죠. 수효대로 내주는 게 아니라만 명을 한 명으로 만들 수가 있고, 천 명을 한 명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한 명을 만 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이 도리를 아시는 분에 한해서는 살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개미들을 모아가지고 내다 놓으면서 "야, 사람들 사는 데 들어오면 너 자꾸 죽어. 그러니까 바깥에 너희들 노는 데서 놀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만약에 개미들을 콩땅 집어먹었다고 봅시다. 집어먹었다면 개미들은 개미라는 무명을 벗고 인간의 도리로, 고생을 하더라도 인간이 돼서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떠며 안 한 사람이 어떠냐는 차이점입니다. 마음의 차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한철 나러 나온 겁니다, 한철! 한철 나는 동안에 이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염불이나 하고 목탁 친다고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형상의 부처님과 형상인 스님과 둘이 아닌 줄 안다면 목탁을 한 번만 쳐도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다고 한다면 목탁을 천만번을 쳐도 그거는 천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식이 항상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가정에서 떠나지 못하죠. 묘지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업식이 잔뜩 들어 있는데 그림자처럼 나타나니까 한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업식 소굴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업식, 의식들을,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모습들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돼 있는지. 보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습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작용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작용을 해가지고 파워를 일으키고 자기 집을 망가뜨리고, 온통 자기가 자기인 것 모양으로 한발짝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고, 빠져 죽을까봐 강을 못 건너가고, 불 바퀴를 넘어설래야 타 죽을까봐 못 가고 이러니까 오백 년이 돼도 천년이 돼도 물가에서 뱅뱅 돌고 건너갈 수 없다는 소립니다.

이러니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병이나 낫고 잘되기 위해서 천도를 시켜드리면 아니 됩니다. 묵은 빚을 갚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드린다면 자손들은 더불어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염주 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생각만 하고 내 발등에 불떨어진 것만 급하게 생각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장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무질을 해서 불을 피워야 일을 하니까 불을 피우느라고 손을 혹혹 불면서 하곤 있다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살아 계시니까 "아이구, 묵은 빚 갚으랴, 자식들은 옹기종기 있으니까 햇빛 주랴, 이거 참 정말 세상 살기가 더욱 더 어렵구나!" 하고선 한숨을 훅 내쉬고선 손을 혹혹 불면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순례를 도시다가 담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묵은 빚을 갚으랴, 햇빛을 주랴는 문제를 아무리 해결할래도 안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이 안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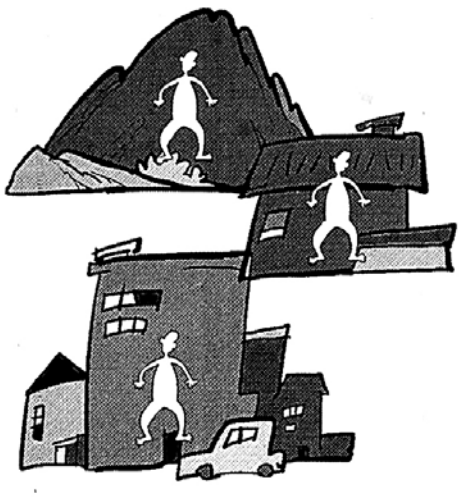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그 이튿날 신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불러오게 해서, "어제 아침 새벽에 불을 피우면서 한 소리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분들이 낳아서 길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죽도록 갚아도 못 갚을 묵은 빚입니다.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풀무쟁이를 싹 치워 주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민으로 살게끔 해주고, 논 농사를 짓게끔 논마지기를 떼어 줘서 살게되었더랍니다. 그것도 한생각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한생각이에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 쇳송할 때 '오종대은(五種大恩) 명심불망(銘心不忘)' 이라고 했습니다. 오종대은이라고 하는 그 멋있는 말씀은 너무나 광대무변합니다. 하다 못해 지수화풍의 은혜, 국민의 은혜, 나라의 은혜, 국왕의 은혜, 사장의 은혜, 모두 천체가 은혜 아닌 게 없다고 했으니 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주상으로 주는 보시기 때문에 고마운 줄을 모르실 겁니다. 한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길러주고, 내 몸을 낳아준 은혜와 또는 부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가, 그래서 육을 낳아 주신 부모의 은혜나 법을 주신 법의 부모의 은혜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왠 줄 아십니까? 부모도 자식을 기를 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부처님도 조건 없이 중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님은 만날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네.' 이러지 마십시오.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먹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고, 또는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형제도 됐다가 사위도 됐다가 순간순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거 됐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공해서,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라는 뜻을 몰라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다.' 고 더 붙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낙성식을 하면서 웬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하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떠나서 어떻게 저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마음의 과학이 아닙니까?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련해서 인연에 따라서 창조력을 기르고 창조해내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로 나라를 지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뭐 로켓트다 뭐다 하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까 총이나 칼이나 활은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더 빠른 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물질 이전, 바로 마음의 핵심 그 자체가 우주 전체를 싸안을 수도 있고, 우주 전체를 집어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의 도리를 열심히 이루셔서 내 몸 이끌고 다니는 이 시자를 튼튼하게 해서 끌고 다니시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 주인공에다 불을 켜도 자식들한테 불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불을 켜면 남편한테도 들어오고, 부인한테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둘로 보지 마시고, 마음의 도리를 하루바삐 깨우치셔서, 깨우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편안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선한 도리만 짓게 되고, 착한 일만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만하게 되고, 부드러운 행만 하게 되니까 홀연히 밝게 참 자기의 소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맛을 보셔서, 그저 한생각이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자식의 뿌리를 도와줄 수 있고,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공부한 분들은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 조사들하고도 둘이 아니요, 일체 스님들하고도 둘이 아니요, 일체 범레하고도 둘이 아닙니다. 그 도리를 아신다면 자유인으로서 여여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대로 끝을 마치면서 끝을 안 마치기로 하죠.

※위 법문은 1992년 5월 31일 금왕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 자기가 다스리고 이끌어야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 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지혜"
[Ge]
초에너지 칼슘(ca++) 효소(酵素) 위력!
1 뼈와 연골(관절)을 재생시키는 능력
• 50대이후 뼈와 관절 퇴화를 막는다.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 효소는 이온칼슘과 합성될때 흡수력을 충족시킨다. (인체내 칼슘이용율 99%)
2 혈액을 맑은 알카리성으로 유지
• 뇌신경, 심장기능 및 혈액 흐름속도를 조절한다.
• 세포 재생능력을 돕고 피부가 청결해진다.
• 마음이 편안해진다.(심장, 뇌신경 안정)
3 소화기능 및 배설(체변)을 촉진
• 위기능 및 영양을 잘 흡수시킨다. (허약체질, 마른체형)
• 장기능을 증진 활성시킨다. (변비, 장염)
• 비만(기초대사를 올려라) : 월 2~3kg 감소
4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 에너지 합성효소는 간기능 신장기능을 신속히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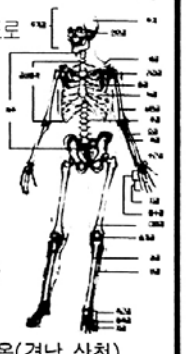

이온칼슘은 체질개선의 주역할


(주)H.L.D 상담대표전화 02)499-4821~3

다 이 어 트
단지 몸매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신의 활기찬 삶과 인생까지 변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명산을 오가며 한방에 관심이 많으신 법우스님.
만병의 원인인 비만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선전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순수 한방 약이면서 무독성으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한방 다이어트 약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2000여명의 복용자 중 95%의 효능이 입증된 전주 W대 한방병원 임상실험 결과 한방다이어트 약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기순환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속의 유해수분과 지방질 흡수작용을 강하게 하여 한달 복용으로 4~5kg 감량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인류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의 합병증인 관절통을 치료하며 외형적 변화가 놀라워 변화된 모습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며 본인도 상쾌하고 가벼워진 자신의 몸매에 감탄할 지경입니다.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을 다스리는 방지책이 준비되어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모든 이 에게 안성맞춤이라 하겠으나 좋은 만남도 불가의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순이익금을 불사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비만에 특효
(한달 복용 4~5kg 감량)
■ 한달 분 가격 : 30만원
■ 전화 주문 시 택배 무료배송
■ 주문 상담문의 : 011-615-7630
농협 100115-52-232981 김종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매동승복 직원일동 -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